인종 평등 설문조사 개요
인종 평등 평가 진실 위원회 (T-CARE)

실비아 샤타니어, 린다 리, 이밴절린 푸아 목사, 린다 스펜서

2024 년 10 월 3 일

2024 년 5 월 21 일 인종 평등 평가 진실 위원회(T-CARE)는 노회 회원을 대상으로 익명 구글 설문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설문조사에는 T-CARE 에서 파악한 주요 관심사와 관련된 질문과 기본적인 인적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설문조사는 영어,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에스파냐어, 중국어(번체)로 제공되었습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노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에 관해 알렸습니다.

- 2024 년 5 월 21 일 노회 회의 중 열린 토론 워크숍과 안건 발표(설문조사의 온라인 판과 문서판)
- 노회 회원 334 명에게 개별 이메일 발송:
  - 이전 T-CARE 설문조사에서 당회 서기가 지명한 당회원
  - 당회 서기
  - 회중의 목사
  - 노회 위원회 위원장
  - 새로운 예배 공동체 목회자
  - 인종차별 반대에 관한 노회 훈련 참석자
- 노회 소식지 구독자 900 명 이상에게 이메일 발송
- 서부 지역 인종차별 반대 모임 소식지 구독자 전원에게 이메일 발송

설문조사는 2024 년 7 월 1 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61 건의 응답이 접수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양식에는 설문조사를 완료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타임스탬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답 날짜를 보면 노회 회의, 서부 지역 인종차별 반대 모임 이메일, 노회 소식지 구독자에 대한 이메일 발송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비영어권 설문조사 데이터는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설문조사의 문서 사본은 구글 양식에 수동으로 입력했습니다. 엑셀에서 자료를 데이터를 피벗 테이블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변환했습니다. 설문조사 언어를 새 열로 추가했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에 따라 정리한 전체 응답에 대한 요약을 수록했고, 그 다음으로 “주요 관심사”에 따라 정리한 요약을 수록했습니다. 읽기 쉽도록 매우 동의함과 동의하지 않음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하지 않음으로 병합했습니다. 결과를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엑셀에 들어있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설문조사 문항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한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결과:

- 노회의 횡단면을 보여주는 261 건의 응답
  - 45%는 유색인종(BIPOC)으로 확인됨
  - 55%는 노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한 적이 있음
- T-CARE 의 설문조사에서는 BIPOC 회원이 노회 내 자신들의 인구 구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응답했기 때문에 노회 안에서 BIPOC 회원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33%는 노회 내 유색인종으로 추정됨
- T-CARE 의 설문조사에는 소수의 노회 회원(전체의 8%)이 다른 언어(한국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번체)로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이 설문조사에서 과소 대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음에 대해 동의했습니다:
  - 노회 회의에 편안하게 참여한다 (66%)
  - 노회에 참여하고 노회에 기여하도록 환영을 받는다고 느낀다 (58%).
  - 참여하고 기여하기가 쉽다고 느낀다 (58%)
  - 자신의 예배 공동체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66%)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다음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 노회 안에서 유색인종 교회/성직자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경험하여 트라우마와 불신을 갖게 된 적이 있는지 (53%)
  - 인종 갈등이 발생한 후 지원도 없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61%)
  - 노회가 현재의 사역 필요보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하는지 (51%)
- 거의 절반이 다음에 동의했습니다.
  - 노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알기 어렵다 (47%)
  -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내 목소리가 중요하다 (47%)
- 거의 절반은 다음에 동의하지 않았다.
  - 노회와의 갈등 중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 (47%)
- 거의 절반이 다음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 노회가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를 향한 분명한 전망을 지니고 있는지 (49%)
  - 노회 회의에서 투표하기 전에 사안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 (47%)

설문조사 인구 통계 결과

응답자의 65%는 자신이 사역 장로나 교역 장로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21%는 자신의 일차적 정체성을 한 회중이나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교인으로 꼽았습니다. 8%는 위임받은 사역 장로/평신도 목회자로, 3%는 안수 후보자라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기타"로 표시된 3%에는 소수의 여러 역할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노회 직원이나 집사, 당회 서기, 교회 직원이 포함됩니다. 27 명은 다른 역할(예를 들어, 사역 장로)에 더해 자신이 노회 총대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역할	백분율
사역 장로	43%
교역 장로	22%
평신도 목회자	8%
교인	21%
안수 후보자	3%
기타	3%
합계	100%

응답자의 50% 이상은 노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회 봉사	백분율	응답자 수
노회에서 섬긴 적이 있음	55%	143
노회에서 섬긴 적이 없음	45%	118
합계	100%	261

봉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위원회나 실무 그룹/태스크포스, 행정전권위원회에서 봉사했거나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이에 더해 위원회나 전권위원회, 실무 그룹/태스크포스에서 위원장이나 공동위원장, 의장으로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역할	응답자 수
위원회 위원장	65
태스크포스/실무 그룹 구성원	111
위원회 위원	81
행정전권위원회 위원	23

다수의 응답자는 복수의 직책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역할의 개수	응답자 수
한 역할을 맡았음	61
두 역할을 맡았음	27

세 역할을 맡았음	33
네 역할 이상을 맡았음	22

응답자의 75% 이상이 56 세 이상이었으며, 25 세 미만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연령대	백분율
25 세 미만	0.4%
26~40 세	7.0%
41~55 세	13.6%
56~70 세	40.5%
70 세 이상	38.5%
합계	10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여성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랜스젠더나 넌바이너리, 기타 젠더라고 밝힌 사람은 없었습니다.

젠더 정체성	백분율	응답자 수
여성	55.6%	145
남성	44.0%	115
밝히기 원치 않음	0.4%	1
합계	100%	261

인종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관해 응답자에게 20 개의 고유한 정체성을 제시했습니다. 다중적 인종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보다 상이한 인종 정체성을 명시하는 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동/북아프리카계라고 밝힌 응답자 1 명의 익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응답자를 복수 인종 집단에 추가했습니다.[1] 분석을 단순화하기 위해 응답을 다음 표에 표시된 여섯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45%의 유색인종과 54%의 백인이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밝히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인종 정체성	응답자 수	설문조사 내 백분율	PSF 내 추정 백분율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61	23%	19%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22	8%	4%
히스패닉/라틴계	22	8%	6%

[1] https://www.nytimes.com/interactive/2024/02/25/us/census-race-ethnicity-middle-east-north-africa.html

복수 인종	13	5%	3.4%
BIPOC 소계	**118**	**45%**	**33%**
백인	141	54%	67%
밝히기 원치 않음	2	1%	0%
총계	**261**	**100%**	**100%**

이 수치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회의 인종/민족 구성과 비교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정보는 2022 년 통계 보고서입니다. 노회 서기에 따르면 2023 년 자료에는 여전히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2022 년에는 절반이 조금 넘는 교회(58%)만이 인종/민족 정보를 보고했습니다. 나머지 교회의 인종/민족 인구를 추정하기 위해 2021 년 서기 보고서 "2021 년 기준 인종적/민족적 교회와 다문화 교회"를 근거로 인구 구성을 추정했습니다. T-CARE 의 설문조사에서는 BIPOC 회원들이 노회 내 그들의 인구 구성보다 더 많은 비율로 응답했기 때문에 노회 소속 BIPOC 회원들의 목소리를 증폭시킵니다. 2022 년 홀리 카우(Holy Cow) 설문조사에는 186 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82%가 백인 응답자였습니다.

설문조사는 5 개 언어로 제공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제외한 모든 언어에 응답자가 접근했습니다.

설문 언어	응답자 수
영어	238
한국어	6
에스파냐어	16
중국어(번체)	1
합계	**261**

응답자의 8% 이상이 이성애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는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성적 지향	응답자 수	백분율
다른 용어	5	2%
양성애자	7	3%
모름	2	1%
게이 혹은 레즈비언	8	3%
밝히지 원치 않음	13	5%
이성애자	226	87%
합계	**261**	**100%**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이 속한 교회의 인종/민족 정체성은 BIPOC 50%, 백인 50%였습니다.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	백분율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2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7%
히스패닉/라틴계	5%
이민자	2%
복수인종	18%
BIPOC 소계	50%
백인	50%
총계	**100%**

응답자는 노회의 세 지역에서 골고루 나왔습니다. 기타/해당사항 없음은 한 예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거나 노회 밖의 공동체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9 명의 응답자는 노회에 지역 구분이 있음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지역	응답자 수
중부	75
동부	80
서부	86
기타/해당사항 없음	20
합계	**261**

응답자들은 예배 공동체 규모의 횡단면을 반영합니다. 가장 작은 규모(40 명 미만)와 가장 큰 규모(500 명 이상)의 예배 공동체에서는 중간 규모의 예배 공동체보다 낮은 비율로 응답했습니다.

예배 공동체 규모	백분율
40 명 이하	18%
41~99 명	32%
100~500 명	35%
500 명 이상	13%
해당사항 없음	3%
합계	100%

주요 관심사

주요 관심사는 T-CARE 가 구조적 인종차별의 토대를 이루며 이를 지속시키는 노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크로스로즈의 연속선 도구와 매트릭스 도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를 확인했습니다. T-CARE 인종 평등 설문조사는 우리의 개입에 대한 지침이 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T-CARE 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자/외부자
2.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
3. 경직성
4. 전망/목표와 관련한 책임성 격차
5. 가용 자원에 관해 희소성을 강조하는 태도
6. 갈등 회피

1. 내부자/외부자. 설문 문항 10, 22, 26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자신의 목소리가 노회에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0.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내 목소리가 노회에 중요하다	백분율
동의한다	47%
동의하지 않는다	15%
잘 모르겠다	38%
합계	100%

복수인종 응답자는 다른 인종 집단보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백인과 아시아계 응답자는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10.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내 목소리가 노회에 중요하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34%	21%	44%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64%	14%	23%	100%
히스패닉/라틴계	59%	9%	32%	100%

복수인종	38%	38%	23%	100%
백인	48%	11%	40%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의 다른 인적 자료를 살펴보면, 젠더와 (맡았던 다양한 직책의 개수로 가늠한) 노회 경험은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중부 지역보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10.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며, 내 목소리가 노회에 중요하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중부	55%	7%	39%	100%
동부	41%	15%	44%	100%
서부	45%	21%	34%	100%

응답자 대부분은 노회 안에서 편안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2. 나는 노회 안에서 편안하게 느낀다	백분율
동의한다	56%
동의하지 않는다	21%
잘 모르겠다	24%
합계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21%는 복수 인종으로 분류된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22. 나는 노회 안에서 편안하게 느낀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51%	30%	20%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41%	32%	27%	100%
히스패닉/라틴계	64%	9%	27%	100%
복수인종	46%	38%	15%	100%
백인	60%	15%	25%	100%

응답자의 40% 이상이 노회가 예배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26. 노회는 나의 예배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20%
동의하지 않는다	41%

잘 모르겠다	30%
해당사항 없음	10%
합계	**100%**

노회가 자신의 예배 공동체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는 데 동의한 20%의 응답자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41%)과 복수인종(50%) 응답자 사이에서 이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는 백인 응답자(14%)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26. 노회는 나의 예배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해당사항 없음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20%	30%	33%	18%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41%	27%	18%	14%	100%
히스패닉/라틴계	23%	36%	41%	0%	100%
복수인종	50%	8%	33%	8%	100%
백인	14%	50%	28%	8%	100%

2.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 설문 항목 8, 15, 20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노회의 업무 처리 방식이 어렵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8. 노회에서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백분율
동의한다	47%
동의하지 않는다	28%
잘 모르겠다	26%
합계	**100%**

다른 언어로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사이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8. 노회에서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설문 언어				
한국어	83%	0%	17%	100%
에스파냐어	63%	13%	25%	100%
중국어(번체)	0%	0%	100%	100%

이민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8. 노회에서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45%	33%	22%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65%	24%	12%	100%
히스패닉/라틴계	50%	17%	33%	100%
이민자	80%	20%	0%	100%
복수인종	46%	37%	17%	100%
백인	47%	24%	32%	100%

사역 장로와 비교해 교역 장로 사이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8. 노회에서 일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평신도 목회자	42%	50%	8%	100%
회중이나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교인	36%	21%	43%	100%
사역 장로	44%	28%	28%	100%
교역 장로	59%	33%	8%	100%
합계	46%	28%	26%	100%

노회 회의에서 투표하기 전에 사안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15. 노회 회의에서 투표하기 전 사안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다.	백분율
동의한다	27%
동의하지 않는다	26%
잘 모르겠다	47%
합계	100%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3 분의 2 이상은 노회 내에서 섬긴 적이 없었습니다.

15. 노회 회의에서 투표하기 전 사안의 모든 측면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토론이 이뤄진다.	백분율

노회에서 맡은 역할의 개수	
없음	68%
한 역할을 맡아 섬겼음	16%
두 역할을 맡아 섬겼음	11%
세 역할을 맡아 섬겼음	4%
네 역할을 맡아 섬겼음	2%
다섯 역할을 맡아 섬겼음	0%
합계	**100%**

응답자의 34%만이 노회가 모든 교회 혹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의 번영을 돕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0. 노회는 모든 회중 혹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을 내린다.	백분율
동의한다	34%
동의하지 않는다	22%
잘 모르겠다	44%
합계	**100%**

백인 응답자가 BIPOC 응답자보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20. 노회는 모든 회중 혹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결정을 내린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BIPOC	38%	27%	35%	100%
백인	30%	18%	52%	100%

3. 주요 관심사: 경직성. 설문 문항 7, 13, and 14.

응답자의 3 분의 2 는 노회 회의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7. 나는 노회 회의에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다고 느낀다.	백분율
동의한다	66%
동의하지 않는다	13%
잘 모르겠다	21%
합계	**100%**

응답자 대부분은 노회가 업무에 창의성을 불어넣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13. 노회는 업무에 창의성을 불어넣고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29%
동의하지 않는다	28%
잘 모르겠다	43%
합계	**100%**

백인 응답자 사이에서는 흑인 응답자에 비해 동의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13. 노회는 업무에 창의성을 불어넣고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BIPOC	32%	36%	31%	100%
백인	27%	20%	53%	100%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노회에 참여하고 노회에 기여하도록 환영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14. 나는 노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환영받고 있다고 느낀다	백분율
동의한다	58%
동의하지 않는다	17%
잘 모르겠다	25%
합계	**100%**

그러나 이민자 예배 공동체에 속한 이들 중에서는 20%만이 동의했습니다.

14. 나는 노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도록 환영받고 있다고 느낀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47%	14%	39%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71%	18%	12%	100%
히스패닉/라틴계	67%	25%	8%	100%
이민자	20%	40%	40%	100%
복수인종	65%	17%	17%	100%
백인	59%	16%	25%	100%

4. 주요 관심사: 전망/목표와 관련한 책임성 격차. 설문 문항 11, 18, 23, 27.

노회가 말한 대로 실천한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11. 노회는 말한 대로 실천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조화를 이룬다.	백분율
동의한다	40%
동의하지 않는다	26%
잘 모르겠다	34%
합계	100%

인종 정체성을 살펴본 결과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응답자의 50%와 복수 인종 응답자의 50%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 응답자의 경우는 18%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백인 응답자 사이에서는 다른 인종 집단보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11. 노회는 말한 대로 실천한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가치와 조화를 이룬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36%	33%	31%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23%	50%	27%	100%
히스패닉/라틴계	64%	23%	14%	100%
복수인종	23%	46%	31%	100%
백인	43%	18%	40%	100%

조사 대상자의 4 분의 1 만이 노회가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8. 노회가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24%
동의하지 않는다	27%
잘 모르겠다	49%
합계	100%

백인 응답자 사이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히스패닉/라틴계 응답자의 64%가 이 진술에 동의한 것과 비교해 흑인 응답자는 14%만 동의했습니다.

18. 노회가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23%	34%	43%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14%	50%	36%	100%
히스패닉/라틴계	64%	14%	23%	100%
복수인종	15%	54%	31%	100%
백인	21%	21%	58%	100%

노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봉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18. 노회가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분명한 전망을 가지고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PSF 에서 역할을 맡은 적이 없음	20%	14%	65%	100%
PSF 에서 한 역할에서 다섯 역할까지 맡은 적이 있음	27%	38%	35%	100%

노회가 책임을 지고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동의하는 사람의 응답자의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23. 노회는 책임을 다해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44%
동의하지 않는다	15%
잘 모르겠다	41%
합계	100%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은 노회가 지역사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27. 이 노회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38%
동의하지 않는다	20%
잘 모르겠다	43%
합계	100%

예배 공동체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히스패닉/라틴계 예배 공동체에서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회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31%	24%	45%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24%	35%	41%	100%
히스패닉/라틴계	75%	17%	8%	100%
이민자	40%	20%	40%	100%
복수인종	50%	15%	35%	100%
백인	34%	18%	48%	100%
합계	38%	20%	43%	100%

더 큰 교회(100 명 이상)일수록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 노회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해당사항 없음	합계
40 명 미만	37%	29%	27%	8%	100%
100 명 미만	22%	40%	26%	12%	100%
500 명 미만	14%	46%	27%	12%	100%
500 명 이상	9%	52%	39%	0%	100%

주요 관심사: 가용 자원에 관해 희소성을 강조하는 태도. 설문 문항 12, 19, 24.
"노회의 자원을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진술에 대해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사이에 차이가 없었습니다.

12. 노회의 자원을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31%
동의하지 않는다	34%
잘 모르겠다	35%
합계	100%

이민자와 히스패닉/라틴계 예배 공동체에 속한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12. 노회의 자원을 필요할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예배 공동체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27%	37%	35%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24%	47%	29%	100%
히스패닉/라틴계	17%	42%	42%	100%

이민자	20%	60%	20%	100%
복수인종	43%	24%	33%	100%
백인	31%	32%	37%	100%
합계	31%	34%	35%	100%

과반수는 노회가 현재 사역에 관련된 필요보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의견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는 동의한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19. 노회가 현재 사역에 관련된 필요보다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백분율
동의한다	32%
동의하지 않는다	16%
잘 모르겠다	51%
합계	100%

이에 더해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응답자의 65%는 노회가 현재 사역에 관련된 필요보다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9. 노회가 현재 사역에 관련된 필요보다 재정 안정성을 우선시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29%	12%	59%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65%	6%	29%	100%
히스패닉/라틴계	50%	33%	17%	100%
이민자	20%	60%	20%	100%
복수 인종	35%	15%	50%	100%
백인	27%	17%	56%	100%

대다수는 자신의 예배 공동체가 필요할 때 노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4. 나는 나의 예배 공동체가 필요할 때 노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백분율
동의한다	66%
동의하지 않는다	13%
잘 모르겠다	18%

해당사항 없음	3%
합계	100%

이 진술에 동의하지 않는 응답자는 소규모 교회(100 명 미만) 소속일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24. 나는 나의 예배 공동체가 필요할 때 노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해당사항 없음	합계
40 명 미만	61%	22%	14%	2%	100%
100 명 미만	64%	15%	17%	4%	100%
500 명 미만	73%	9%	15%	3%	100%
500 명 이상	70%	6%	21%	3%	100%

주요 관심사: 갈등 회피. 설문 문항 9, 16, 21, 25.

응답자의 36%는 노회 내 갈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백인 응답자의 33%와 전체 BIPOC 응답자의 38%가 포함됩니다.

9. 나는 노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거나 스스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36%
동의하지 않는다	47%
잘 모르겠다	17%
합계	100%

9. 나는 노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동안 피해를 입는 것을 목격하거나 스스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BIPOC	38%	42%	20%	100%
백인	33%	52%	15%	100%

응답자의 거의 40%가 우리 노회 안에서 유색인종 교회/성직자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경험하여 트라우마를 겪고 불신을 품게 된 적이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16. 우리 노회 안에서 유색인종 교회/성직자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경험하여 그 결과 트라우마를 겪고 불신을 품게 된 적이 있다.	백분율
동의한다	39%
동의하지 않는다	11%
잘 모르겠다	53%
합계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응답자 중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백인 응답자의 65%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16. 우리 노회 안에서 유색인종 교회/성직자가 인종차별적 행동을 경험하여 그 결과 트라우마를 겪고 불신을 품게 된 적이 있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시아/태평양 제도/남아시아계	38%	21%	41%	100%
흑인/아프리카계 미국인/아프리카계	68%	0%	32%	100%
히스패닉/라틴계	55%	9%	36%	100%
복수인종	38%	23%	38%	100%
백인	33%	3%	65%	100%

응답자의 60% 이상이 우리 노회 안에서 인종 갈등이 발생한 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가기"를 기대하는지에 관해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21. 우리 노회 안에서 인종 갈등이 발생한 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가기"를 기대한다.	백분율
동의한다	26%
동의하지 않는다	13%
잘 모르겠다	61%
합계	100%

백인 응답자의 74%가 모르겠다고 답한 반면, 흑인 응답자의 경우는 41%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21. 우리 노회 안에서 인종 갈등이 발생한 후 아무런 지원도 없이 사람들이 "그대로 넘어가기"를 기대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BIPOC	40%	19%	41%	100%
백인	15%	11%	74%	100%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24%만이 노회가 인종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25. 노회는 인종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	백분율
동의한다	24%
동의하지 않는다	30%
잘 모르겠다	46%
합계	100%

그러나 백인 응답자의 53%는 노회가 인종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에 BIPOC 응답자 중에서는 37%만이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25. 노회는 인종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합계
BIPOC	37%	28%	35%	100%
백인	14%	33%	53%	100%